

**KB YMCA**  
**Raonatti**



**3월 활동 보고서**

**at Vietnam YMCA**



## 라온아띠5기, 베트남가다!



3월 3일, 고대하던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잔뜩 긴장해 출발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은 호치민 시티(Ho Chi Minh City)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포용으로 금세 풀렸다. 'Raonatti'라고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우리 다섯을 맞이해주신 Chu Loc(사무총장님)과 Trang(코디네이터), 그리고 Tien(코디네이터)은 마치 오랜만에 보는 친척처럼 안아주셨다. 날씨가 후덥지근해 불타오르는 이 땅에서 마음까지 따뜻하면 어찌하란 말인가... 첫날부터

열정에 불이 붙는 듯 했다. 공항에서 차로 약 40분정도에 위치한 숙소와 베트남YMCA(Cong ty Hop Tac Tre)를 향해 나섰다. 아 근데 이게 웬 말인가. 풀렸던 긴장은 차를 타는 순간 다시 찾아왔다. 말로만 듣던 오토바이 천국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오토바이에 2-3명씩 올라타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한 가족이 오토바이타고 상경하듯 4명이 한 오토바이를 함께 타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무서웠다. 아니, 확연히 달랐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현지에 가서 운전은 하지 말라고 하시던 간사님의 말씀은... 불필요했다. 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할 터였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숙소는 아늑하고 좋았다. 짐을 풀고 바로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베트남YMCA에 가서 사무총장님, 그리고 코디네이터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사진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첫 끼니. 반찬 두 개와 간장, 그리고 국과 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다 먹기도 벅차게 흥분했다. 다 먹기도 전에 밥그릇을 가득 채워주는 베트남 인심은 우리를 배불리 해주었다. 현지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이 밍지 않았다. 오히려 봉사 와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첫 끼니부터 배불리 먹었다. 간단한 베트남 단어들을 배우며 사무총장님과 코디들과 함께 했던 저녁식사는 말 그대로 최고였다. 맛있고 멋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저녁식사였다.



글 / 편집 : 새 암

# Huon's Diary

ngày 5 tháng 3  
3월 5일



전쟁기념관 (Bảo tàng Chiến Tranh)  
미국의 잔혹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  
아직도 전쟁 후유증이 남은 자손들을 만나볼 수 있다.

노트르담 성당 (Nha Tho Duc Ba)  
유럽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내 리판!



중앙우체국 (Bưu Điện Thành Phố)  
천장과 벽에 걸린 거대한 Bac Ho! 국제 우편도 보냈어요^^\*

쌀국수 (Pho) & Spring roll (Chả giò)



다이아몬드 플라자 (Diamond Plaza)  
한국인이 만든 곳! 호치민 시는 이렇게 차보다 오토바이가 승승 다닐답니다





한국의  
Americano  
보다 쓰고 단  
베트남커피!

### 카페베벳 (Cafe bet)

얇은 카페라떼는 뜻으로 통일궁 앞 잔디밭 이렇게 앉아 있으면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주문을 받는다!



통일궁 (Dinh thong nhât)  
남베트남 정권 시대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한 컷!



### 벤판시단 (Cho Ben Thành)

역사가 오래된 2000개의 상점이 모인 곳이다.  
관광객에게는 Mac qua! (바나나)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한지 3일째, 우리는 관광객과 같이 한껏 들뜬 마음으로 호치민 시티투어를 떠났다.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건물과 풍경 속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웠지만 베트남의 주요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오토바이들의 매연 때문에 다들 다음날부터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다. 너무 큰 도시이기에 하루 만에 돌아다니기에는 벅찼지만 앞으로의 호치민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다. 아직은 작은 해프닝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기!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내일도 한 발 내딛어야지!

Ngày 6 tháng 3

3월 6일

# 어느 일요일의 만찬



Lotte Mart

한국의 롯데마트보다 크대!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비슷, 한국제품이 많이 있다



요리중

카레와 실패한 김치전...  
우리의 노력과 사랑없이 한국의 밀가루가 없어서다 Cole(아바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될 Trang (짱)과 Tien(띠엔)을 초대하여 한국의 카레라이스와 김치전을 만들어 대접했다. 입맛에 맞지 않았을 텐데 남기지 않고 다 먹어주어서 Cam on(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용 ♡-♡



Tiên, 23살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한국말을 한 번 듣고 바로 따라 하는 Thông Minh(intelligent)!!!!  
그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다



Trang, 21살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3개국어가 능통한 그녀  
나이는 어리지만 코디네이터로서 넘치는 카리스마!  
Trang(짱)은 짱이예요~'

코디네이터를 소개합니다



< 베트남 허플릿 대학교 >

# 한국어학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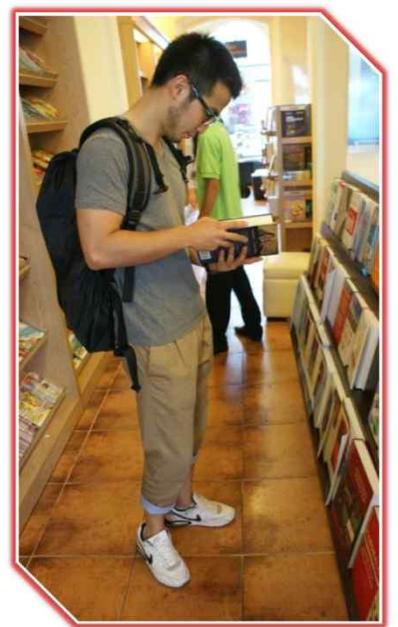
시간은 3월 19일, 약속한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다. 한국어학과라!!

나는 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트남에 한국어학과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왠지 모를 기대감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지 고민도 되었다.



드디어 약속했던 오후 3시! ‘후훗!~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 되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친구들은 2명 뿐……. “왜 2명밖에 없는 거지? ㅠ.ㅠ” 물어보니 다른 친구들은 오고 있다고 한다. 우선 어디든 가야지! 신나게 발걸음을 옮기며 대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와 보는 베트남 대학교. 야외에 책상들이 놓여있었고, 그 곳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대학교 구경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은 이 학교 학생들이 아니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편히 만날 장소가 없어, 도심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만난 것이었다.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시내구경을 나섰다. nha sach[책방이지만 카페와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다.]에 들러서 잠시 구경을 하고, vincom백화점에도 갔다. 우리는 백화점 지하에 있던 오락실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는 오락실이라 정말 재미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친구들은 오락실을 그다지 좋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락실에 처음 간 친구도 있었다. 다시금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을 간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Xin loi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 우리가 만난 곳이 도심이라 짠 음식점이 없어서 크게 부담 없고 얘기를 나누기 좋은 롯데리아로 결정을 내렸다. 가던 길에 베트남 친구들이 맛있는 간식을 사주었다. 베트남식 와플과 말린 바나나였는데 맛이 일품이었다.

우리는 햄버거 세트를 먹고, 베트남 친구들은 롯데리아에서 밥을 시켜먹었다! 롯데리아에서도 밥을 판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먹으면서 우리는 끝말잇기를 하고, facebook 아이디를 나눴다. [베트남에서는 facebook 사용이 어렵지만 대부분 facebook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스티커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열 명의 인원이 한 번에 스티커 사진을 찍기엔 무리였던 것 같다. 아쉽게 나와 새암이는 스티커 사진에 이마와 눈썹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친구들을 보내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 하였다. 만남 간 서로 베트남어, 한국어를 가르쳐 주며 한국 드라마나 가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더욱 친근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우리들의 추억



Vietnamese friends



# 이건 보너스!

## 베트남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응(Dung)



서툰 한국어가  
귀여운 응!

쭝(Trum)



수줍음 많은  
shy 잉이 쭝!

란(Lan)



한국인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란!

칸(Khan)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칸!



# 3월 미션! 베트남어 배우기

베트남에 도착한 우리 팀의 첫 한 달 간의 미션은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이다. 5주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코디네이터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게 베트남어를 배우고 호텔에 돌아와서도 숙제를 하고 각자 복습을 하면 하루가 끝이 난다. 이렇게 힘들게 베트남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은 바로 베트남어와 우리나라 언어 사이에는 비슷한 단어들도 많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우리나라 언어가 비슷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비슷한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의 연관성을 찾자면 사람들은 흔히들 베트남 전쟁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과거 한자를 사용하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있던 4개의 나라 중 2개의 나라이다.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도 많다. 예를 들면 동의(動議)는 동의, 꽃 즉 화(化)는 호아다. 이렇게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에서 비롯되었지만 우리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똑똑한 대학생 선생님들도 기본적인 한자를 잘 모른다. 왜냐하면 베트남 언어의 표기법은 17세기에 프랑스 신부가 표기법을 로마자로 만든 후 20세기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표기법이 로마자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베트남어와 다른 나라들의 언어와 비교해보았을 때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베트남어는 성조가 6개나 있다. 성조는 우리나라 언어에는 없어서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똑같은 ma 라는 글자를 두고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내렸다가 올리느냐 등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게에 가서 사탕(keo)을 사려고 할 때 keo라는 단어를 음을 급격히 내려 발음해야 하는데 올려 발음하면 가위(kéo)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쓸 때에는 항상 톤에 주의해야한다. 베트남어의 두 번째 특징은 지역 간의 언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 간의 언어의 차이점은 있지만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의 언어의 차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베트남은 아래위로 긴 지역적 특징과 과거 북부와 남부의 달랐던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같은 뜻을 두고도 다른 단어가 아주 많다. 베트남어를 처음 공부하는 우리에게 우리나라 언어와 다른 점들이 많아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색다른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오늘도 베트남어 공부 cố lèn(화이팅)!



# 베트남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어를 두 분의 코디네이터와 네 분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한테서 돌아가며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다.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지원한 20명의 지원자 중에서 뽑힌 선생님 네 분은 쟁쟁한 경쟁률만큼이나 실력파이시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 4명 중 한명인 타오(Thao)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다. 타오 선생님의 매력은 수업시간에는 우릴 사로잡는 카리스마 선생님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동방신기 이야기에 즐거워하는 21살 귀여운 친구가 된다는 점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이자 귀여운 친구인 우리 타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Thào, 21살, Foreign Trade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전공

## Q. 왜 우리들을 가르치겠다고 지원했나요?

A.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를 가르치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다시 베트남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나 역시 라온아띠 팀처럼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라온아띠 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원봉사 선생님을 지원했죠.

## Q. 정말 잘 가르쳐주시는데 베트남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많나요?

A. 일본인 친구와 공부하면서 일본인 친구는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나는 베트남어를 가르쳐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는 아니지만 다양한 과목들을 과외하면서 가르쳐본 경험은 많아요.

## Q. 한국가수도 좋아하고 한국어를 조금할 수 있던데 배워보셨나요?

A. 한국어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단지 한국가수를 좋아하면서 노래 가사를 공부해서 알고, 한글을 읽을 줄만 알아요.

## Q. 같은 대학생인데 졸업하면 무얼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A. 졸업하면 Social worker가 되고 싶어요. Social worker는 아직은 베트남에서 흔하지 않은 직업이지만 Social worker가 되어서 라온아띠 팀처럼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요. 만약 Social worker가 되지 못하고 전공을 살려서 비즈니스 우먼이 되더라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계속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우리 베트남 팀은 한 달 동안 베트남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대학생 선생님은 또 우릴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지내는 우리는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이 되기 위한 한 발짝을 내딛고 있다 : D



# 붕따오캠프

3/26(토) ~ 3/27(일)

호치민시 대학생 동아리 BLUE GALAXY와 함께 봉사캠프에 참가하다

호치민에서 세 시간 거리에 있는 붕따오 (Vung Tao)라는 해변 휴양 도시에서 열린 캠프에 우리 라온아피도 함께 하게 되었다. 코디네이터인 Tien 이 캠프 주최인 Blue Galaxy의 회원이었기에 소개를 받아 가게 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해서 총 52명이 함께 했던 ‘붕따오 캠프’. 캠프 참가자들은 호치민시 내 여러 대학교에서 Blue Galaxy의 홍보물을 보고 온 대학생들이었고, 우리도 그들처럼 ‘대학생’ 자격으로 참가했다. 호치민시를 벗어나 다른 도시에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설렘이었으며, 베트남 대학생들이 어떻게 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블루갤럭시는 호치민 시티 내 대학생들이 만든 봉사동아리이다. 가난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 그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지만, 동아리 멤버 외에도 원하는 외부인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붕따오캠프도 그 행사 중 하나로, 우리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 -붕따오 가는 길-

어느 회원의 집에서 모여서 다 같이 전세버스를 타고 갔다. 4시에 모이는 걸로 알고 우리는 3시 45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5시가 되어야 하나, 둘 씩 모이기 시작했다. 결국 출발한 시간은 6시. 베트남 사람들이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코디네이터 Trang에게 듣긴 했지만, 그걸 직접 경험해 본 것은 그 당시에 처음이었기에 ‘기다림’에 조금 지쳐버렸다.

3시간 걸리는 붕따오 가는 길 내내 버스에서는 ‘오락’이 진행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회원들을 캠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고, 몇 명에게는 노래를 시켰다. 어쩐지 한국에서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갈 때 벌어지는 익숙한 광경이었다.

예상보다 늦어진 9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원래 잡혀있던 팀빌딩게임 스케줄은 취소되었다. 이른 점심을 먹고 길을 나섰기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끼고 있던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힘이 풀린 채로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딱 한 군데 열었기에 곧장 가서 늦은 저녁식사를 했다. 다른 참가자들 모두 그 곳으로 하나 둘 씩 모였는데 우리와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으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해서 아쉬웠다.





[Nha Nghi]: 우리말로 [쉬는 집]  
 해변휴양지에 있는 호텔에 가는 줄 알고  
 들떠있었는데 의락에 있는 Nha Nghi에 더  
 착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ㄹ;;

우리가 묵었던 호텔(?). 베트남 법규상 외국인은 숙박비를 더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티를 내지 않으려(?) 방에 들어가  
 기 전까진 침묵을 지켜야 했다.

### -다음날 오전 : 해변에서 놀기-

고아원에 방문하기 전에 놀 시간이 주어졌다. 버스로 20분 쯤 달려서 바다에 도착했다. 줄다리기와 축구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남성VS여성'으로 팀을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팀 당 여자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여자팀  
 에게 불리하진 않았던 것 같다. 줄다리기는 여자가, 축구는 남자가 이겼다.



이렇게 단체사진도 남녀 따로 찍는다.



### -고아원 방문-

총 일곱 개의 게임을 고아원 운동장에 세팅해 놓고 대학생들이 게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다가  
 가는 방식이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Blue Galaxy가 기획하는 행사에 보조도우미 역할을 했다.

사실 Blue Galaxy가 준비한 게임은 열 개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70명 고아원 원생 중에 대부분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라 게임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이미 당일 오전에 다른 단체에서 방문해서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생각만큼 신나있지 않았다.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만 게임을 했고, 그 수보다 배 이상인 52명의 대학생들이 진행을 맡았다. 아이들이 없는 게임부스에서는 그냥 대학생들끼리 줄다리기를 하고, 긴 줄넘기를 넘는 등 우리끼리 즐겼다. 게임 후 '퍼포먼스'도 준비했지만 관객(?)이 없는 관계로 취소되는 아픔까지 있었다.



그렇게 어설픈 행사였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느꼈던 행복의 크기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옆에서 단순히 당일치기 참가자로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도 고아원에 연락해서 행사날짜를 잡고, 행사를 기획하고, 대학생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들인 노력의 크기가 눈에 보였다. 예상처럼 행사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에게서 실망하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본 적이 없다. 베트남 대학생들의 열정, 그 순간을 즐기는 마음에 우리도 같이 동화될 수 있었던 1박 2일이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점이다. 나중에 우리와 동행했던 코디네이터 Trang에게 들어보니 함께 했던 베트남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란다. 실제로 버스에서 뒷좌석 혹은 앞좌석에 앉은 베트남 여대생들이 우리에게 어설픈 한국말을 써 보이며 친해지려 했었는데 우리는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 50여 명의 베트남 대학생 사이에 낀 외국인 5명이라는 수(數)적인 열세.....그 분위기(?)에 눌려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고는 했지만, 생각해 보면 '외국인 5명'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었음은 베트남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지참해야 될 듯!

글 / 편집 : 수빈





“맥주는 역시 사미공”

KB-YMCA



비 미럴 줄 알았지, 휴...^^



웃자 웃어 :)

Ronatti 5th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덥다.

at Vietnam YMCA  
aka. Congty Hop Tac Tre  
-kp. FB, HR, YJ, SA  
Rat Khoe!





*to be continued*